

研究論文

# 『덕천사우연원록 (德川師友淵源錄)』의 성립

오이환

경상대학교 철학과 교수, 동양철학 전공  
yihoh@gnu.kr

- I. 머리말
- II. 편찬의 계기
- III. 작업의 추이
- IV. 간행 후의 분규
- V. 맺음말

이 논문은 2009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9-327-A00169).

## I. 머리말

『덕천사우연원록(德川師友淵源錄)』은 광복과 한국전쟁을 거친 이후 1957년부터 1960년에 이르는 시기에 덕천서원을 중심으로 편찬 간행된 남명학과 혹은 그것과 관련이 있는 인물의 구성을 보여주는 문헌이다. 연활자본 6권 2책으로서, 권1 도통원류(道統源流: 4인), 권2 종유(從遊: 52인), 권3·4 문인(門人: 135인), 권5·6 사숙(私淑: 162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조 시기에 무민당 박인에 의해 편찬된 필사본 『산해사우연원록(山海師友淵源錄)』을 숙종 28년(1702)에 『남명선생별집』이라는 이름의 목판본 9권 4책으로 간행하고, 영조 40년(1764)에 김돈과 박정신이 교정한 것을 계승 보완한 것이다.

계승적인 면모로는 종유·문인 편이 수록 인물은 기본적으로 박인의 것을 바탕으로 하고, 거기에 보이지 않는 인물은 종유 편에 첫머리에 특례로 제시한 이언적·이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빙문헌을 제시하여 종유·문인 편에 말미에 덧붙이거나 그 속록(續錄)으로 추가한 점을 들 수 있다.<sup>1)</sup> 그러나 계승이라고는 하지만 이 두 종류의 책은 체제상 큰 차이가 있다. 전자는 주희가 주돈이 이하 도학자 46인의 전기 자료를 정리 편집한 『이락연원록(伊洛淵源錄)』의 체제에 준하여 조식의 종유인 및 문인의 묘도문자(墓道文字)와 유사(遺事)를 수집 정리한 형태로 되어 있는 데 비해, 후자는 관계 문헌 및 연원가로부터 받아들인 단자(單子)를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기술 내용이 비교적 간략하면서도 수록 범위는 훨씬 더 포괄적이다. 전자에 수록된 인물은 ‘도의지교(道義之交)’ 및 ‘존선생자(尊先生者)’<sup>2)</sup> 24인과 ‘문인(門人)’ 50인을 포함하여 총 74인이지만 후자는 총 353인으로서 거의 다섯 배에 달한다. 그러므로 오늘날 남명 연원의 인물지로서는 보다 포괄적이어서 편리하게 이용되고 있는 문헌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산해사우연원록』에 보이지 않던 ‘도통원류’와 ‘사숙’ 편을 설정한 점도 두드러진 차이인데, 도통원류 편에는 남명이

1) 이언적·이황 이외에 단서 없이 후자의 권2 종유 편에 추가된 인물로는 成遇·李潤慶이 더 있고, 반대로 전자의 권9 문인에 수록된 俞大修는 착오로 후자의 권3 말미에 ‘見編年’이라는 단서와 함께 덧붙여졌다.

2) 『남명선생별집』 권5에 ‘尊先生者’로 분류된 林芸·裴紳·姜翼·崔櫟은 『덕천사우연원록』에서는 ‘문인’ 편으로 옮겨졌다.

25세 때 손수 그렸다는 사성현화병(四聖賢畫屏)에 보이는 공자·주돈이·정호·주희를 수록했고, 사숙인은 그 범위를 숙종 시기까지의 인물로 한정했다.

이 글은 이 문헌의 성립과 출판,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분규를 규명함으로써 광복 이후 강우 유림의 동향을 추적하고자 한다. 이는 필자가 1980년대 이래 지속해온 남명학의 전체 역사 재구성 작업의 종결 편에 해당한다.

## II. 편찬의 계기

간행된 『덕천사우연원록』의 말미에는 『남명선생별집』 교정자인 김돈의 5대손 김재수(金在洙, 자 啓源, 호 重軒, 1878-1962)와 이 책의 주필이자 1956년 이래 덕천서원의 외임(外任)이었던 하우선(河禹善, 자 子導, 호 澹軒, 1894-1975)이 1960년에 각각 집필한 발문이 첨부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1957년의 덕천서원 춘향(春享) 때 영남 여러 군(郡)의 유림이 많이 모였는데, 그때 종래의 『산해사우연원록』의 미비점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 새로 편찬하기로 의견이 모아졌으며, 복암 조원순이 지은 ‘공주정 주사성현서설일통(孔周程朱四聖賢序說一通)’의 예에 따라 조식 도학의 원류로 간주되는 4성현으로써 상편을 삼고, 이황이 편찬한 『송계원명리학통록(宋季元明理學通錄)』이 남송 이후 명대에 이르기까지 ‘주장후사숙제자(朱張後私淑諸子)’를 서술한 것을 본받아 사숙 편을 추가하기로 했다는 것이다.<sup>3)</sup>

조원순의 글이란 오늘날 덕천서원에 전하고 있는 필사본 『산해연원록(山海淵源錄)』 1책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표지에 ‘복암소찬(復菴所撰)’이라 적힌 이 책은 본문이 총 14장으로 되어 있고, 그 밖에도 본문의 앞과 뒤에 부분적으로 추가한 3쪽이 덧붙여져 있는 비교적 간단한 것인데, 그 첫머리에 ‘도통원류’라 하여 공자·주돈이·정호·주희 4인을 수록하였고, 그 이후로는 조광조·이언적·이황을 비롯하여 우리나라 사람 115인을

3) 金在洙, 「德川師友淵源錄跋」, “丁酉春享, 山南諸郡士盛集, 合辭言前行淵源錄未備, 無乃舉其名而遺其實乎. 今有後孫復庵公(垣淳)抄孔周程朱四聖賢序說一通, 此夫子平生手摹遺像朝夕瞻拜有願學之心也 [...] 遂以四聖賢爲上編. 又以淵源之支流餘裔者續之曰私淑, 取法於理學通錄南軒考亭之門諸子之在曾玄行而爲其徒者列書之者也.”

수록하였다. 대체로 조식의 종유인과 문인 순서로 기술되어 있으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고, 서차 또한 일정한 원칙에 입각해 있지 않다. 각 인물의 성명 아래에 주석 형식으로 간단한 인적 사항과 약력을 소개한 다음, ○ 부호 다음에 조식과의 관계를 서술하였다. 곳곳에 첨삭, 수정한 자취가 보이고, 부분적으로 종이를 덧댄 곳도 있어서 미완성의 초고에 불과한 것이지만, 그 내용과 체제는 기본적으로 후대의 『덕천사우연원록』에 수용되고 있다.

덕천서원에 모인 유림이 1957년 5월 15일자로 정한 '덕천사우연원록찬집소임명안(德川師友淵源錄纂輯所任名案)'에 수록된 인물을 거주지별로 분류해보면, 단성 15, 진주 24, 성주 1, 고령 2, 하동 3, 고성 1, 삼가 2, 함양 1, 의령 1, 거창 1, 산청 2인으로서, 전원이 경상우도 사람이다. 이 가운데서 주된 역할을 한 사람은 도유사(都有司) 김재수, 교정(校正) 하우선·권창현 외에 부유사(副有司) 도병규·정영석, 편집(編輯) 성만수, 장물(掌物) 조상하·조철섭인데<sup>4)</sup>, 이들은 모두 덕천서원의 인근지역인 진주와 단성에 거주한 사람들이다.

이 중 덕산의 창녕조씨 문중인 조상하·조철섭 중 조상하는 은진송씨 소생 조식의 셋째 아들 차정 계열인 만호공파(萬戶公派)로서 조원순의 아들 조용상이 1930년에 타계한 이후 그 뒤를 이어 문중의 장로 역할을 해온 인물이다.<sup>5)</sup> 그리고 조철섭(자 德卿, 호 後山, 1898-1993)은 둘째 아들 차마 계열인 칠원공파(漆原公派)로서 일제시기 덕천서원의 내임이자 1930년대에 소천서당에서 『남명집』 중간본을 새로 인쇄했던 조표의 차남이며, 1956년부터 1962년까지 이 서원의 내임(內任)을 맡은 사람이다.<sup>6)</sup> 또한 도병규(자 允夫, 1887-?)는 1944년부터 1946년까지, 권창현(자 晦卿, 1900-?)은 1952년부터 1953년까지 각각 덕천서원의 외임을 맡았다. 정영석(자 德行, 1888-?)은 해주인(海州人)으로서 하우선과 마찬가지로 옥중에 거주하면서 1962년에 함께 소천서당 유계에 가입했으며<sup>7)</sup>, 성만수

4) 河禹善, 「德川師友淵源錄跋」, “是役也, 負重望而能鎮衆者金丈在洙氏也, 具隻眼而助勘校者權君昌鉉也, 樂與之協贊者都君秉圭曹君相夏鄭君永錫也, 始終不渝而各勤其事者成君萬秀曹君哲燮也.”

5) 오이환, 「일제시기의 덕천서원」, 『동양철학』 제32집(2009), 182-183쪽, 190쪽.

6) 오이환, 『남명학과연구 上』(남명학연구원출판부, 2000), 492쪽; 『德川書院誌』, 「院任錄 下」, 22ab; 『昌寧曹氏文貞忠順衛公派譜』.

7) 필사본 『小川儒契案』. 정영석이 거처한 곳은 지금의 河東郡 玉宗面 屏川里이며, 하우선은 옥중면 安溪里인데, 옥중면은 조선시대에 晉州 西面에 속했다. 부유사인 도병규와

(자 孟一, 호 海琴畸人, 1907-1965)는 조식 문인인 부사 성여신의 후예로서 하우선과 각별한 사이였다.<sup>8)</sup>

그 가운데서도 핵심 인물인 김재수와 하우선은 둘 다 면우 광종석의 문인록에 보인다.<sup>9)</sup> 김재수는 상산김씨의 세거지인 단성 범물리에 거주했는데<sup>10)</sup>, 남평조씨 소생 조식의 딸은 이 마을 사람 김행에게 출가하였다. 이 일대 상산김씨 문중에서 당대의 이름난 유학자인 단계 김인섭, 물천 김진호 등이 배출되고, 그들과의 인연으로 말미암아 허전의 문집 『성재집』이 범물에서 간행되었으며, 의성김씨인 중재 김황 또한 1928년 이래로 이 마을에 정착하였다. 김재수의 5대조인 목재 김돈<sup>11)</sup>과 7대조인 소산 김석의 문집은 김인섭이 교감하고 그 행장도 지었는데, 그는 어려서 족속인 김인섭과 김진호에게 배우기도 하였다.<sup>12)</sup> 그는 일찍이 1920년대 초에 덕천서원의 사우(祠宇) 복원과 서원 중건을 위한 통문을 지은 바 있었으나<sup>13)</sup>, 그 이후 덕천서원과 관계된 사업에서 그의 이름이 눈에 띄는 것은 하우선이 외임이 되어 1956년 9월에 창립한 이 서원의 유계(儒契)에 참여하면서부터이다.<sup>14)</sup>

정영석은 1943년에 작성된 『山天齋 任案』에도 광종석이 講長으로 있던 시기의 齋有司로 보인다. 그러나 광종석이 1919년에 이미 타계하였음을 고려한다면, 그들이 齋任을 맡은 것은 그 이후일 것이다. 『應辨辨』에 첨부된 『答龍江道江及各處通文』에서 1961년 3월 10일자로 발행된 『德川師友淵源錄辨誣通文』에 대해 언급하여 “當日德川會席, 山天齋任鄭永錫, 以答通之意高聲宣布”라 한 것도 그것을 입증해준다.

- 8) 필사본 『漁軒集』 (7) 墓碣銘 「成孟一墓碣銘 并序」, “君嘗酷好余, 從之遊者餘二十稔矣.”
- 9) 『侏宇集』(아세아문화사 영인본, 1984) 4, 『侏門承教錄』; 필사본 『重軒隨艸』 「侏宇先生祭文」.
- 10) 지금의 山淸郡 新等面 坪地里 法勿마을이다.
- 11) 金墩의 묘는 범물리 傳巖山의 祖考 묘 아래쪽, 즉 지금의 신등면 長川里 梨橋에 있다.
- 12) 『商山金氏世譜』 (11) 31a, 提學公派; 『商山金氏先蹟誌』(商山金氏大宗會); 목판본 『端溪集』 (5) 詩 「在洙讀書亭, 其歸贈此以勉之」; (14) 書 「與族姪在洙」; 鉛活字本 『端溪集』 附錄 (1) 「年譜」, “[高宗]十五年戊寅(先生五十二歲[1878]), 校小山(碩)默翁(墩)兩公文集”, “三十九年壬寅(先生七十六歲[1902]), 族子在洙來學”; 부록 (2) 32b-34b, 族子在洙撰 「祭文」.
- 13) 『重軒隨艸』, 「德川書院重建通文」.
- 14) 덕천서원 소장 필사본 『德川書院儒契案』 『時到記』 참조. 현존하는 『德川書院儒契案』은 4책으로 되어 있는데, 丙申(1956) 9월 4일에 처음 작성된 이래, 丁酉(1957) 3월 6일, 9월 5일, 戊戌(1958) 3월 2일까지의 것이다. 대체로 春秋 享禮 때 작성되었는데, 그중 첫 번째 것에 김재수를 필두로 하여 하우선·도병규 등의 이름이 차례로 보이며, 각자 성의에 따라 납부한 임회비(名金)도 기록되어 있다. 정유년 이후의 것에는 문중별로 한꺼번에 가입(入單)한 경우가 많다. 『時到記』는 향례의 참석자 명부로서, 庚寅(1950) 2월 26일, 壬辰(1952) 8월 20일, 癸巳(1953) 2월 3일, 8월 26일, 甲午(1954) 2월 18일, 9월 2일, 乙未(1955) 3월 4일, 丙申(1956) 3월 10일, 9월 1일, 丁酉(1957) 3월 6일, 9월 10일의 것이 남아 있다.

하우선은 1956년부터 1960년까지 조철섭과 더불어 덕천서원의 내·외 임으로서 함께 재임하였는데, 원임을 마친 후에도 『소천서당유계안』<sup>15)</sup>의 임인년(1962) 조에 그의 이름이 올라 있다. 그는 겸재 하홍도의 아우인 낙와 하홍달의 10대손이며, 『겸재집』을 중간한 니곡 하응로의 손자이기도 하다.<sup>16)</sup> 하홍달의 아들 하철(河澈)의 『설창실기(雪窓實記)』와 『니곡집』은 1934년 그에 의해 편찬 간행되었다. 그가 덕천서원의 원임을 맡아 있던 기간 중에 이룬 주요 사업으로는 이 서원의 유계를 창립하고, 당시까지도 강당과 사우만 존재했던 서원에다 1958년에 비로소 동재(東齋)를 건설하며<sup>17)</sup>, 『덕천사우연원록』을 편찬 간행한 점을 들 수 있다.

하우선은 1956년 9월 4일 유계의 창립에 즈음한 통문에서 덕천서원의 당면 과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나라 안에 평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덕천서원이 우리러 받들어야 할 곳인 줄 모르는 이 없건만, 400년 이래로 흥패(興敗)가 무상하여 빠트린 일이 많으니, 무엇이 그러합니까? 동·서 양재(兩齋)가 아직도 갖추어지지 못한 것이 하나요, 사우연원록을 간행하지 못한 것이 하나요, 원중(院中)에 유계가 없는 것이 하나입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 될 것인데, 이력저력 게을리 하다가 오늘에까지 이르렀으니, 어찌 우리 영남 유림의 큰 흠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본당 회석에서 공의(公議)가 준발(峻發)하여 먼저 유계를 창립할 것을 결정하였고, 그 외의 두 가지 일은 힘이 못 미치는 바 있으므로, 부득이 유계를 만든 다음 그 자금으로 후일을 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각 문중의 천주(薦主)를 정하여 여러분께 보내드리오니, 바라옵건대 여러분께서는 문중 단자(單子) 및 인근 각 문중의 단자를 만들어 즉시 본원으로 보내어 유계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sup>18)</sup>

15) 오이환, 앞의 책(2000), 492쪽 참조.

16) 河應魯, 『尼谷集』 (4) 附錄 하우선 찬 「家狀」 참조.

17) 『담헌집』 (11) 부록 河有楫 찬 「家狀」에는 덕천 원임이 되어 유계를 창립한 다음 해인 “丁酉[1957] 朔建德院東齋”라고 되어 있으나, 덕천서원에 “戊戌[1958] 陰六月二十六日” 서원 측이 晉陽郡 水谷面 元溪里의 鄭鎬俊과 체결한 東齋建築契約書가 남아 있는데, 거기에 건축비 16만 원으로 정하여 음력 8월 이내에 준공하기로 되어 있다.

18) 『澹軒集』 (10) 通文 「德川書院修契通文」, “一邦之內, 雖愚夫愚婦莫不知德川之爲可尊可仰, 而歷四百年來興敗無常, 事多缺憾, 憾者何? 東西兩齋之尚未備一也, 師友淵源錄之未刊一也, 院中之無儒契一也. 是三者, 不可以闕一, 而因循頹惰, 拖至今日者, 豈不爲吾嶺儒林之一大欠事耶? 肆於本堂會席, 峻發公議, 先以朔立儒契爲斷案, 而此外二事, 則力有所未逮, 不得不立契以資之, 以竣後日. 茲定各門薦主, 封圈以呈于僉尊座下, 伏願僉尊修門單及隣近各門單子, 卽須輸送于本院, 以敦契事, 千萬善甚.”

유계의 창립을 위해 도내 각 문중의 천주를 정해 그들로 하여금 자기 문중 및 이웃 문중 가운데서 유계 구성원이 될 사람의 인적 사항을 작성해 보내도록 하고, 이 유계 구성원들의 인적 네트워크와 그들이 낸 자금을 바탕으로 하여 뒤이어 사우연원록과 동·서재의 건립까지도 추진해나가고자 하는 구상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다음 해인 1957년 4월에 도내의 유림이 덕천서원에 모여 사우연원록을 개간하는 문제에 대해 협의하여 편찬을 담당할 사람을 선정하고 덕천서원에 편집소를 두기로 하였으며, 마침내 도내 각 문중의 임원을 정한 다음, 4월 10일자로 원임 하우선을 필두로 회원 김재수·이병석<sup>19)</sup>·정영석·조철섭 이외 100여 인이 연명하여 통문을 발하였다. 당시 편집 책임자로 위촉된 사람이 하우선이었고, 통문 또한 그가 지었다. 그는 고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는 내 선조가 정성을 다했던 터이라”하며 마침내 수락했다고 한다.<sup>20)</sup>

지난 400년 동안 전후(前後)로 편찬한 연원록이 어떤 것은 일실되어 전하지 않으므로, 세상에서 48가(家)의 고제(高弟)가 있다고 일컬어지지만 증빙할 수 있는 문헌이 또한 없으니, 이는 지역 여러 선비들이 개탄하는 바가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 이에 저희는 분수를 헤아리지 않고서 편집하여 수록할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차 각 연원가로부터 널리 채록코자 하여, 먼저 지역 안의 여러분께 통고하는 바입니다. 바라옵건대 여러분께서는 즉시 선조의 단자(單子)를 작성하시어 본원에 왕림하셔서 서로 충분히 상의해 유문(儒門)의 큰일을 이룩할 수 있게 해주신다면 여간 다행이 아니겠습니까.<sup>21)</sup>

통문 가운데서 일실된 연원록이란 덕천서원의 초대 원장인 각재 하향에

19) 李炳錫(자 甯允, 1902-?)은 단성 新安 사람으로서, 1957년부터 1960년까지 하우선과 더불어 덕천서원의 외임을 맡았다.

20) 덕천서원 소장 필사본 『德川師友淵源錄顛末』(乾), “丁酉四月日, 嶺人士會德川書院, 議改刊淵源錄, 而選定有望之士, 使編纂之. 於是, 設編葺所於本院. 遂派任道內各門各家, 封圈以送, 而仍爲發通焉.”; 『담헌집』(11) 부록 「家狀」, “以道論編輯德川淵源錄, 始力辭之, 而竟不得焉, 則乃曰, 是先祖殫誠之地也, 遂從事焉.”; 曹圭詰, 『夙夜齋叢稿』(서울: 東仙會, 1982), 518쪽, “衆議委公以編輯德川淵源錄. 蓋是錄也, 屢議而屢格, 以士林中有力沮之者故也. 公始固辭而竟不得焉, 則曰, 是乃吾先祖殫誠未果之事也. 遂矢心不撓, 越四年而訖.”

21) 『담헌집』(10) 「山海師友淵源錄刊所通文」, “冉冉四百載之間, 前後所纂淵源錄者, 或逸而不傳, 世有四十八家高弟之稱, 而文獻又無憑, 此爲域中多士之一慨恨久矣 [...] 肆鄙等不自量己, 思所以編錄之. 將廣採于淵源各家, 先此通告于域中僉尊. 伏願僉尊即修先單, 以臨于本院, 互相爛議, 克敦儒門大事, 不翅幸甚千萬.”

의해 최초로 편찬된 조식 사우록을 가리킨 것이며, 하우선의 선조가 정성을 다했던 사업이라 함은 박인의 『산해사우연원록』 편찬에 그의 방조(傍祖)인 하흥도가 관여했던 사실을 의미한다.<sup>22)</sup> 덕천서원 측에서는 각 문중의 임원을 정하고, 그들을 통해 해당 문중과 그 인근 연원가로부터 선조들의 단자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새 연원록에 수록할 인물들에 관한 자료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 III. 작업의 추이

오늘날까지도 덕천서원에는 『덕천사우연원록』 편찬 당시에 각 문중으로부터 수집한 단자들이 대체로 보관되어 있다. 그것들은 대부분 1957~1958년 사이에 수합된 것인데, 피봉이나 내지(內紙)에 적힌 책의 이름은 '산해연원록'이 많으나, 그 밖에도 '남명선생사우록', '남명선생연원록', '덕천서원연원록', '덕산종유록', '덕천서원문인록', '덕천서원사우록', '덕천서원연원문인록', '덕천서원사우문인록', '덕천서원산해사우연원록' 등 다양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당시까지 책의 이름은 상기 통문의 제목에 보이는 『산해사우연원록』으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었던 듯하다. 단자에는 많은 경우 복수로 된 해당 문중 선조의 종유·문인·사숙의 구분, 인적사항과 생애, 조식과의 관련, 단주(單主)의 주소와 성명, 작성 시기, 주문하는 간본의 수 등이 기재되었다. 덕천서원 측에서는 단자에 적힌 개개의 인물에 대해 더러 첨삭 수정을 가하기도 하고, 단금(單金)의 납입 여부를 기입하며, 일련번호를 부여해 첩(綴)하였다. 더러는 '재덕천서원청금안(載德川書院靑衿案)', '청금안(靑衿案)' 등 1939년에 『덕천서원청금록』이라는 제목으로 주석을 붙여 출판된 『덕천원생록』을 통해 단자에 적힌 인물이 조식 연원이 맞는지를 확인하는가 하면, '재고(再考)'라는 문구도 눈에 띈다.

하우선은 선조의 단자를 작성해 직접 덕천서원을 방문했다가 성주로 돌아간 박종섭에게 1959년 여름에 보낸 편지에서, 자신이 『산해연원록』의 편집을 맡고 난 이래 수년 동안에 여러 가지 분쟁이 존재해왔으나 작업이 차츰 마무리되어가고 있는 상황임을 알리고, 그가 작성한 단자는

22) 오이환, 앞의 책(2000), 175~177쪽, 181~182쪽, 191~195쪽 참조.



수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 서술되어 있다고 하면서, 그와 달부(達夫)가 천주가 되어 성주 일대의 단자를 수합해줄 것을 당부하고, 아울러 단금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sup>23)</sup>

또한 유해기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산해연원록』과 관련한 분쟁에서 한쪽 편에서는 1920년대의 덕천서원 재건 당시 사우(祠宇)에서 출향되었던 수우당 최영경의 위패를 다시금 봉안함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sup>24)</sup>, 이 두 가지 사안을 분리하여 현재로서 가능한 연원록의 편집을 우선할 수밖에 없음을 설명하고 있다.<sup>25)</sup>

이 문제는 하우선이 모헌 하훈의 후손인 하치원(河致源)에게 보낸 편지에 “배향 및 비석을 깨트린 일에 대해 한쪽의 논란이 있음은 당연”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라 이제 와서 어찌할 수 없다고 보여, 당시에 최영경의 출향 및 그것과 거의 같은 시기에 일어났던 미수 허목이 찬한 덕산비의 파괴 문제가 다시금 거론되어, 연원록 편집의 전제조건으로서 그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sup>26)</sup> 이 문제에 대한 덕산 조씨 측의 입장은 집요하여, 연원가의 단자에 적힌 허목과 관련된 문자조차도 모두 삭제하여 신지 않는다는 방침이어서 이로 말미암아 하우선과의 의견 대립이 있었으며, 하우선 자신 또한 『현재집(弦齋集)』에 수록된 문자 가운데 하홍도를 폄하한 문구를 개정하는 문제로 말미암아 현재 조용상의 두 아들인 계섭(啓燮)·동섭(東燮)과의 사이에 마찰을 빚고 있었

23) 『담헌집』(4) 書「答朴警遠 鍾燮 己亥」, “山海淵源錄, 實儒門鉅役, 而顧人微如禹者, 不敢冒居重任, 以故控單力辭者不一, 而多士之請, 有終不可孤, 則不得已妄擔一肩。然數年之間, 恐囑日至, 而携貳萬端, 到今取次成緒, 必印刊乃已, 則彼外來之謂, 不足畏也。先先生單子, 謹受奉聞, 而據此可見山海淵源之一脈在裡也。當依教編入, 而所述極是整齊, 恐無待乎取舍存刪。且既有當時之質難文義, 師門之奇愛期勉, 則愚意當載門人之列, 私淑則恐謬矣, 然未知僉見之將以爲如何耳。靈川鄭兄, 秋間有來期, 則單金同付, 亦無不可, 鄭兄信人也, 必不食言耳。達夫兄亦泰安否? 貴近數鄉門單, 執事與此兄, 共爲薦主如何? 兩兄年德俱邵, 風動一方, 必無不從之理, 且山海私淑半在星鄉, 其入單之多寡遲速, 惟在兩兄之宣力如何耳。”

24) 오이환, 앞의 논문(2009), 174-179쪽 참조.

25) 『담헌집』(4) 「答柳見夫 海冀」, “方以儒門事, 知舊聞攻札日至 [···] 山海淵源錄, 一邊之論, 以守愚之配爲前茅, 參錯於其中, 吾恐其人實非誠赤於守愚, 必歧異之, 將欲沮其事也。蓋守愚之當配, 鄙人非不識也, 淵源之當編輯, 彼邊亦非不識也, 而顧今之勢, 惟其可能者編輯也, 最所不可能者配享也。今必欲以兩件事合而舉之, 此不惟其不可能者之不能成, 將並與其可能者而欲瓦解之也。然畢竟私不勝公, 則彼一邊之論, 何足畏哉!”

26) 『담헌집』(4) 「答河贊翊」, “配享及破碑事, 宜有一邊之論, 而彼既倒之瀾, 非隻手之所能挽回也, 則今時移事變之後, 開說恐無益, 停之可也。” 德山碑 서비에 대해서는 오이환, 앞의 논문(2009), 179-187쪽 참조.

던 것이다.<sup>27)</sup> 하우선이 후일 『덕천사우연원록』이 간행된 후에 단자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분규의 원인을 설명한 바에 의하면, 이러한 문제는 김황(金槐, 자 而晦, 호 重齋, 1896-1976) 형제가 조씨 문중에 대해 사감을 품고서 무리를 결집하여 연원록의 편집을 저지코자 했던 것이라고 한다.<sup>28)</sup>

그 외에도 단자를 수합하기 시작하자 합천의 내암 정인홍 후손이 가장 먼저 보내왔으므로 처음에는 수록할 예정이었으나, 두 차례에 걸쳐 성주의 회연서당 측으로부터 항의를 받아 결국 두 번 다 되돌려 보내는 과정에서 벌어진 심각한 갈등의 양상도 있었다.<sup>29)</sup>

『산해사우연원록』은 1959년 중에 일단 편집을 마쳤으나, 다시금 대폭적인 수정 작업을 거쳐 다음 해 가을에 『덕천사우연원록』이라는 명칭으로 연활자로 출판되었다.<sup>30)</sup> 정인홍의 단자를 돌려보낸 데 항의하여 정기원이 1959년 12월 7일자로 조철섭에게 보낸 서신의 봉투에 '덕천사우연원록편집소'라고 적혀 있고, 뒤이은 상기 서산정씨화수회의 서신 첫머리에도 “『덕천사우연원록』 창간”이라는 말이 보이므로, 1959년 12월까지는 이미 이 명칭이 확정되어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7) 『담헌집』 (4) 「答河鳴國 鍾洛 己亥」, “淵源錄編輯與收單, 幾至斷手, 而就中有不可不奉告者, 德川後孫於一軒公註脚下許文正上下四十二字, 必欲刪去, 與余言詰者至十數回, 而終迷不悟, 令人可鬱.”; (3) 「答曹文卿」.

28) 『담헌집』 (10) 「德川師友淵源錄辨誣通文 代士林作」, “及受單之際, 金東岡先生後孫樾槐昆季輩, 以有私憾於曹氏故(私憾見金槐所爲應辨文), 糾結黨徒, 力沮其事, 其沮之之術則曰, 守愚先生之配享也, 眉叟先生之撰碑也, 皆復舊然後當刊淵源錄, 否則不可刊也. 是其心實非誠赤於守愚眉叟兩先生, 必歧貳之, 欲令刊事將瓦解之也. 士林諸氏爲彼輩所誑惑, 初不納單, 而畢竟私不勝公, 則刊事取次成緒矣.”

29) 『담헌집』 (4) 「答檜淵書堂僉座」. 한강 정구와 그 문인 이윤우를 향사하는 檜淵書院은 고종 5년(1868)에 훼손되어 1974년 이후 비로소 보수 복구되기 시작했으므로, 당시에는 아직 서당이라 이름하고 있었다. 정인홍의 13세손 鄭璣達이 1959년 음력 8월 10일에 刊所로 보낸 서신에 의하면 “去年 九月 貴德川書院 秋享時 生三從叔海洙氏(字允範) 參禮에 際하여 [...] 鄙先祖單자와 單費金은 去年 九月 十日자로 納付”되었으며, 대구에 있는 瑞山鄭氏花樹會本部가 1959년 12월에 간소로 보낸 서신에는 “今九月初에 還單되”었다고 한다.

30) 前掲 「答河鳴國 鍾洛 己亥」에 “淵源錄編輯與收單, 幾至斷手”라 하고, 김재수의 발문에 적힌 年紀가 ‘庚子嘉排節’, 즉 1960년 음력 8월 15일로 되어 있음에 근거한 것이다. 前掲 하우선 「家狀」에는 “越四年辛丑, 遂告成焉”이라 하여 1961년에 완성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덕천사우연원록전말』 (간)에 실린 ‘庚子重九[前十二日]’자의 「金在洙與德川內任書」와 ‘庚子九月十日’자 「鴨峴金氏投單曹氏門中」에 이미 연원록이 간행된 사실이 보이는 점과 모순된다. ‘庚子八月二十八日’자로 陳德奎가 조철섭에게 보낸 서신에는 “德川淵源錄竣功, 感謝無地, 而鄙宗之所要以四冊”이라고 간본을 주문한 내용이 보인다. 『담헌집』 (9) 祝文 「德川師友淵源錄告成文」 참조.

오늘날 덕천서원에 편집의 중간 단계에서 이루어진 필사본 『산해사우연원록』 3책과 간본의 모체로서 청서(淸書)된 필사본 『덕천사우연원록』 2책이 보존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것들이다.<sup>31)</sup> 『산해사우연원록』은 종유편·문인편·사숙편 각 1책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책의 표지에는 '단비를 납부하지 않은 이의 단자는 돌려보낼 것(單費不入者當還單)'이라고 기입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첨삭 수정한 부분이 많고 종이를 덧댄 곳도 있어, 시안으로서의 성격을 지닌 것이라 할 수 있다.

『산해사우연원록』의 종유편(從遊編)은 조정암·이회재·이퇴계의 순으로 수록하여 조원순의 『산해연원록』 첫머리에 보인 조광조를 포함했고, 말미에는 누락된 인물 8명의 이름을 적었으며, 누락자를 포함한 총 50인의 이름 밑에 각각 일련번호를 붙여 장차 재조정될 순서를 표시하였다. 호칭은 대체로 아호이나 이따금 직명도 보인다.

문인편 이하는 성명을 바로 적었는데, 종유편과 문인·사숙편에 수록된 인물들에 대한 이와 같은 호칭 방식의 구분은 『덕천사우연원록』에서도 그대로 답습되었으며, 오건·정구·김우굉·김우옹까지의 순서는 『덕천사우연원록』의 그것과 다름없다. 주목할 점은 문인편의 47번째에 정인홍이 수록되었다가 삭제되었는데, 그 항목의 서술 내용은 불과 4행으로 된 간단한 것이며, 말미에 고종 정미년(1907, 융희 원년) 신원 치제(致祭)된 사실이 언급되어 있다. 사숙편에는 하홍도·하홍달·하철·하덕망·하덕휴·하대명·하대관 등 하우선의 문중 선조들에 대한 서술이 상세하다.

필사본 『덕천사우연원록』 2책 중 상권의 표지에는 '凡例·目錄·師友門人四篇, 并八十二枚, [범례·목록]并十三枚, 又四枚'라고 적혀 있고, 하권의 표지에는 '私淑篇二篇, 凡五十五枚, 此外跋文□枚, 任名錄二枚'라고 적혀 있다. 필사본을 간본과 대조해보면, 양자는 각 행과 글자수 및 위치까지 거의 정확하게 일치하며, 각 매의 접속 부위나 수정하여 덧붙인 곳 등에는 모두 전서(篆書)로 '담헌(澹軒)'이라 새긴 도장이 찍혀 있으므로, 인쇄에 부치기 위해 최종적으로 청서한 다음 하우선의 면밀한 검토를 거친 것임을 알 수 있다. 『담헌집』 권9에 「덕천사우연원록범례」가 수록되

31) 덕천서원 관련 필사본 자료들은 필자가 1980년대에 남명학 관계 자료를 조사 수집하던 당시 덕산 문중의 장로였던 故 曹義生 翁과 內任이었던 曹鍾明 씨를 통해 입수되었고, 曹玉煥 사장의 재정적 원조를 얻어 복사 제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자료들은 그 후 필자의 주선에 의해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고문서집성 25-덕천서원 편』(1995)에 수록되어 영인 출판되었다.

어 있으므로, 범례 또한 하우선이 집필한 것이다.

상권의 목록 다음 내지(內紙)에 다시 ‘道統源流, 從遊并續錄, 門人并續錄, 并七十枚, 此外凡例目錄十三枚’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로 범례 3, 목록 10, 권1 도통원류 2, 권2 종유·종유속록 18, 권3 문인 30, 권4 문인속록 20매로서 이 숫자는 간본과 정확히 일치한다. 하권 또한 시숙편 권5 25, 권6 30(말미에 첨부된 諸賢贊述 포함), 임명록 2, 발문 3매로서, 필사본의 표지에 적힌 숫자와 간본의 매수는 일치한다. 필사본 하권의 끄트머리에는 하우선의 발문 2매만 보이고, 김재수의 발문 1매는 간본에 이르러 추가된 것이므로, 아직 입수되지 않은 김재수의 것을 고려하여 발문의 전체 매수 부분은 비워둔 것이다. 다만 필사본 상권의 표지에 적힌 숫자는 그 내지에 적힌 것과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으니, ‘并八十二枚’라 함은 83매의 착오인 듯하지만, ‘又四枚’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불명하다. 청서본에도 더러 수정 자취가 있는데, 수정한 내용들은 모두 간본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 IV. 간행 후의 분규

『덕천사우연원록전말』 2책은 『덕천사우연원록』이 간행된 이후에 전개된 분규와 관련된 통문이나 서신 등의 자료를 부정확하지만 대체로 시기 순으로 필사 편집해둔 것으로서 두 책 표지의 오른편 상단에 각각 ‘秘’라고 적혀 있으며, 그러한 고문서의 원본들은 지금도 대부분 보관되어 있다. 이 책의 첫머리에는 「사감원인(私憾原因)」이라 하여 분쟁의 원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동강 김우옹이 지은 조식의 행장이 사실에 어긋난 점이 많으므로, 『동강집』을 중간할 때 조식 후손이 행장의 내용 중 일부를 고쳐줄 것을 요청했으나 김씨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후 조원순이 주관하여 『남명집』 중간 사업을 추진할 때도 행장 때문에 시비가 많아 5년 동안 세 번이나 간소를 옮겨 설치하였으면서도 김씨 측의 저지로 끝내 중간을 완수하지 못한 채 타계하였다. 조원순의 아들 조용상이 이를 통한(痛恨)하여 「선자문하서술고증(先子門下敘述考證)」을 지어 행장의 미비점을 변증했는데, 그의 문집인 『현재집』이 간행되자 김항이 그 글을 보고서 크게 유감을 품어 마침내 덕산의 조씨 측과

사사건건 대립하여 갈등을 조성하게 되었다는 것이다.<sup>32)</sup> 이는 결국 덕산의 조씨 측이 허목이 지은 「답학자」나 「덕산비」에 적힌 내용은 조식의 행장에 근거했다고 인식한 데서 유래한 것이므로, 이 문제는 덕산비 사건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sup>33)</sup>

김황은 1956년 초가을에 「응변(應辨)」을 지어 조용상의 김우옹 찬 조식 행장에 대한 비판을 조목별로 반박하고, 또한 『현재집』과 덕산 문중의 주장 전체를 논박하였다. 그의 논지는 김우옹이야말로 조식으로 부터 가장 오랫동안 가르침을 받은 적전(嫡傳) 제자로서 그가 지은 행장은 당시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오늘날 조식의 후손이 이를 문제 삼아 비판하고서 김우옹 대신 정구를 조식의 적전으로 부각시키고자 함은 오로지 당쟁의 피해의식으로 말미암아 당목(黨目)을 회피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sup>34)</sup> 그는 다음 해 가을에 위촉받은 연원록 편집의 교정(校正) 직임을 사절하는 편지를 간소로 보내면서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응변」을 첨부하였다.<sup>35)</sup>

도유사 김재수가 『덕천사우연원록』의 발간 직후인 1960년 음력 8월 28일에 덕천서원 내임 조철섭과 조상하에게 통지한 서신에 의하면, 그 전날 저녁에 김황이 같은 마을에 사는 자기를 찾아와 연원록의 발간 여부를 물으며 열람을 요청하므로 꺼내서 보여주었다. 김황은 자기 선조는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말하고서 단자를 돌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수록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김우옹의 나이가 정구보다도 많고 게다가 그 형인 김우평은 정구보다 18세나 위인데도 불구하고

32) 1906년 겨울 의령의 二宜亭에서 『동강집』을 중간했고, 조원순이 타계한 것은 1903년 2월이므로, 이러한 설명은 시기적으로 순서가 맞지 않는다. 조용상은 물론 김진호를 『동강집』 중간소로 보내어 김우옹이 찬한 남명 「행장」과 「행록」의 수정을 요청한 바 있으며, 김우옹 후손 측이 이를 거절하자 1910년에 그가 간행한 『남명집』 중간본에는 결국 이 글들을 신지 않았다. 이 사태의 배경에 대하여는 오이환, 「『南冥集』重刊本の 성립」, 『철학논총』 제32집 제2권(2004), 45-46쪽; 오이환, 앞의 논문(2009), 185-187쪽 참조.

33) 『弦齋集』(5) 雜著 「先子門下敘述考證」, “不肖嘗讀金東岡及鄭相所撰先子行狀, 見所論頗有未穩處, 因以先子之言考之, 又證成大谷所撰碣文, 而竊記之如左.”; (3) 「答鄭漢祖 戊辰」, “惟德山碑, 一依狀文.”

34) 『重齋集』前集(45) 雜著 「應辨」, “南冥先生之行狀, 成於我金東岡先祖之手, 當時信之無異辭, 行之無碍惑, 以其親炙之久嫡傳之望, 而能寫出眞面目故也 [...] 然彼曹氏, 既不知南冥, 又焉知寒岡乎? 特其欲依違黨目, 而措寒岡而頭戴之耳 [...] 抑此事自有來歷, 當初慫恿者, 其故智專在駭黨.”

35) 『重齋集』後集(7) 書 「答德川敬義堂會中」; 前集(41) 雜著 「德山碑解」.

이들의 위차를 정구 다음에 배치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따졌다. 이러한 예(例)는 박인의 『산해사우연원록』에서 이미 정해졌으므로 그것에 준한 것이라고 대답하자, 김황은 갑신본에서는 자기 조상을 정구보다도 앞으로 올렸다면 크게 분노하여, 이번 일의 책임은 김재수와 하우선에게 있다고 하고, 다음날 진주로 가서 압현(鴨峴)의 김씨 문중을 소집하여 일을 벌이겠다고 말하고서 돌아갔다 한다.<sup>36)</sup>

압현촌은 지금의 진주시 지수면 압사리(鴨寺里)로서 김우옹을 추모하여 1902년에 지어진 용강서당(龍江書堂)이 있는 곳인데, 1928년 가을 서당의 남쪽에 굉정각(閼精閣)을 지어 당시까지 이의정에 머물러 있었던 『동강집』 중간본의 목판을 옮겨가 보관하고 있다.<sup>37)</sup> 1960년 9월 10일자로 김황의 형 김건을 포함한 압현의 김우옹 후손들은 덕산의 조씨 문중으로 통지문을 보내어, 앞서 김황이 언급한 바와 같은 이유로<sup>38)</sup> 연원록을 반질하기 이전까지 김우굉·우옹 형제의 항목을 즉시 빼줄 것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유론(儒論)이 일어나 수습하기 어려운 분규가 발생할 것임을 경고하였다.

이에 대해 조씨 측에서는 쟁변하지 않고 다만 겸손하고 따뜻한 말로 회답하고 그 답서의 원본은 보존해두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다음 해인 1961년 정월 10일자로 당장(堂長)인 김우옹의 종손 심산 김창숙을 필두로 하는 용강서당 회중은 인쇄된 통문을 보내 각 유소와 문중으로 배포하고, 여기에서 정월 7일자 김재수의 「자명서(自明書)」와 김황의 「응변」을 첨부하였다. 용강서당 측의 주장에 의하면, 선현의 도덕이 높고 낮음은 후생이 감히 평가할 수 있는 바가 아니므로, 위차를 정할

36) 前掲「金在洙與德川內任書」; 오이환, 앞의 책(2000), 199-207쪽, 234-242쪽 참조. 『남명별집』의 갑신교정본에서는 초간본에 대한 김우옹 후손 측의 주장이 모두 수용되었으나 정구와 김우굉·우옹 형제의 위차까지 바뀐 것은 아니었다. 『无悶堂集』(1) 五言四韻「挽朴凌虛 敏」에 “允矣曹夫子, 東方道學宗, 旨訣傳岡老, 師承即我公”이라 하여 정구를 조식의嫡傳으로 인정한 문구가 보인다.

37) 『晋陽續誌』(1) 12b; 金克永, 『信古堂遺輯』 부록 (3) 「言行草記」; 『내 고장의 전통』(진양군, 1983), 78쪽, 82쪽; 『진주의 문화유산』(진주문화원, 1998), 48쪽, 79쪽 참조. 『晋陽續誌』와 『晋州通志』에는 龍岡書堂이라고 되어 있으나, 고문서에 龍江書堂으로 보이며 현관도 그러하다. 여기에 보관되어 있는 것은 『동강선생문집』 중 「續綱目」 36권 318매의 목판이다.

38) “今於淵源錄編修之日, 決意不與共事 [...] 乃貴門之不待收單而遽自入錄, 已是千萬料外, 況聞其刊出之際, 妄評道德, 顛倒年齒, 稱謂之輕重, 書法之淺深, 尤是鄙門之所不忍默然冒受者.” 이 글에서는 문중에서 결의하여 처음부터 단자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때 있어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공정한 기준은 오직 연령의 선후라는 것이었다.<sup>39)</sup>

도유사 김재수는 전년 12월 22일자로 조철섭에게 보낸 서신에서 김황의 편협한 국량을 비판하면서, 만약 김씨 문중에서 연원록의 위차 문제에 대해 덕천서원으로 통고문을 보내오면 그들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고 그 글을 되돌려 보내야 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불과 보름 정도 후에 씌어진 이 「자명서」에서는 용강서당 측에 전적으로 사죄하고,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 데 대해서는 자신의 본의가 아니라 담당자를 신뢰하여 잘 감독하지 못한 탓으로 돌렸다.<sup>40)</sup> 이에 대해 하우선은 1961년 2월 13일자로 김재수에게 서신을 보내 그의 배신과 반복무상한 태도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sup>41)</sup>

「용강서당통문」에 대해서는 경북 성주군 대가면 칠봉동의 김우옹 본향에 있는 청천서당 회중이 이해 3월 중에 답통을 보내 전폭적인 지지와 아울러 일제시기인 1920년대에 덕산에서 벌어진 허목의 덕산비파괴와 최영경의 덕천서원 출향 문제까지를 아울러 성토했던 데 이어, 당시 그 사건들에 관련된 당사자였던 진주 인근의 대각서당(3월 13일), 의의정(3월 17일), 도강서당(4월 15일), 진주향교(4월 15일) 등<sup>42)</sup>이 잇달아 지지하는 내용의 답통을 발송하였다. 또한 김우옹과 같은 의성 김씨인 학봉 김성일을 봉향하는 경북 안동시 송현동의 임천서원(9월 2일)에 이어 안동군 월곡면 도곡동의 호계서당(9월 5일)으로부터도 김우옹이 조식 문하의 수제자일 뿐만 아니라, 『도산금문제현록(陶山及門諸賢錄)』의 사례를 보아서도 나이순으로 배열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통문이 왔다.

청천서당의 답통에서는 용강서당 통문과 마찬가지로 『덕천사우연원록』에 대한 책임을 하우선과 조철섭 두 사람에게로 집중시키고서, 이들에 대해서도 김재수가 그렇게 했던 바와 같은 반성과 사과의 의사 표시를

39) 「龍江書堂通文」, “夫先賢之道德高下, 既非後生最末之所敢妄自裁酌, 則所可易見者, 惟是年齒之先後耳.”

40) 『德川師友淵源錄頤末』(乾) 「金在洙與德川書院內任曹哲燮書」, 『龍江書堂通文』 「附今編淵源錄都有司金在洙自明書」.

41) 『滄軒集』(4) 「與金丈啓源 在洙」; 『德川師友淵源錄頤末』(乾) 「附河禹善與金丈在洙書」, “始各司後裔之納單也, 吾丈獨抗言其不可, 其後裔之恐喝也, 則遂輕許其入錄, 及檜淵之有通簡也, 則又獨主其退單, 累入累出, 反覆無常 [...] 吾丈雖登九部齡, 精神氣魄, 少無漸損, 動作言論, 無異少壯時節, 而獨此一事, 諉之於老耄可乎? 吾丈之前後共事, 傍證自在, 往復書簡, 筆蹟不泯, 今欲超然獨出於彼輩擠陷之中耶?”

42) 오이환, 앞의 논문(2009), 174-187쪽 참조.

촉구하고 있다.<sup>43)</sup> 그러나 하우선은 3월 10일자로 덕천서원 회중 109인의 연명으로 통문을 발하여, 이 사태의 근본 원인이 김건·김황 형제의 조씨 문중에 대한 사감과 그들에 추종하는 간소의 전(前) 임원 손영석에게 있음을 밝히고, 용강서당 통문을 조목별로 반박하고서 원임의 직을 사퇴 하였다.<sup>44)</sup> 그러므로 이 이후에 나온 진주 및 그 인근지역의 통문들은 다시금 비판의 초점을 하우선과 그가 집필한 변무통문에 맞추고 있는 것이다. 하우선은 이 통문의 말미에서 용강서당과 청천서당의 통문에 각각 작자의 이름이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모두 김황이 집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김황의 「응변」에 대해서는 장차 조용상의 후예로부터 따로 반론이 있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그런데 11월 15일에 회연서당이 석판 인쇄한 통문을 발하여 도강서당 통문을 논박하고, 그 말미에 김황의 「응변」을 논변한 「변응변(辨應辨)」을 실었다. 회연서당 통문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선현을 존숭할 경우에는 덕이 기준이 되므로 일반적인 예법에서 나이를 따지는 것과는 다르며, 정구는 주희·이황의 도통을 계승한 도학의 적전(嫡傳)으로서 남명학과를 비호해주는 존재이므로 마땅히 조식의 수제자로 대우해야 한다고 언급한 대목이다.<sup>45)</sup> 이는 바깥 말하면, 남명학과에는 도통이 없고 퇴계학과에는 있는데, 정구는 조식의 문인인 동시에 퇴계학과의 도통을 계승한 존재이므로, 남명학과의 다른 인물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오늘날 덕천서원에는 「김황서이증덕천서원(金槐書以贈德川書院)」이라는 제목으로 필사된 장문의 서신이 전하고 있는데, 이 글은 하우선의 변무통문에 대한 김황의 반론임이 틀림없지만 간행된 『중재집』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그 글 속에 “바야흐로 회연에서 통문이 발하여 청천에

43) “所謂河馬善曹哲雙輩，聲討之當嚴，而既云儒家之子弟，則幸或說諭而使開悔過就新之路，亦仁者包容之一道，而終若負固不服，則不可岸視而等閒之。”

44) 『澹軒集』(10)「德川師友淵源錄辨誣通文 代士林作」 및 그 원본 참조. 이 통문에 적힌 날짜는 덕천서원의 춘享日이며, 연명자는 그날 時到記에 적힌 이름을 그대로 옮겨 쓴 것이라고 한다. 하우선은 이날 덕천서원 외임의 직에서 물러나고 梁熹煥이 그 후임이 되었다.

45) 「檜淵書堂通文」, “尊賢以德，相讓以齒，古今天下之通義 [...] 蓋嘗論孰非賢也，賢不得盡與於道統之列，而莫尊嚴於道統之賢也 [...] 德川，先師當日師事之地也。不刊淵源錄則已，若刊之則以朱李之嫡統覆庇之於德川諸子，有何國中士論之不可?” 『덕천사우연원록전말』(간)에는 경북 의성군 점곡면 사촌의 권씨 문중이 덕천서원으로 보내어 「용강서당통문」을 비판한 「沂川齋通文」이 「회연서당통문」뿐만 아니라 상기 「臨川書堂通文」보다도 앞에 배열되어 있으나, 그 원문에 발행시기가 명기되어 있지 않고, 등기우편 봉투에 찍힌 우체국 消印에서 '62'라는 숫자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1962년도의 것임을 알 수 있다.



대항한다고 들었다(且聞方自檜淵發通以抗晴川)라는 문구가 있는 것을 미루어 보아, 변무통문이 나온 직후가 아니라면 이 무렵에 씌어진 것이 아닌가 한다. 그는 1962년 정월에 따로 「응변후기(應辨後記)」를 써서 자신을 '사문난적'으로 규정한 회연서당 통문을 조목별로 논박했으며, 「근서천군전후(謹書天君傳後)」를 지어 김우옹이 조식의 도학을 계승한 수제자일 뿐 아니라, 「천군전」에서 '심즉리'를 처음으로 제창하여, 이황으로부터 이어지는 주리설을 바르게 계승해 후대의 인물로서 동향이자 자기 외손에 해당하는 한주 이진상에게로 그 취지를 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sup>46)</sup>

회연서당 통문은 전국의 유소 문중에 대해 도통대현을 존위하기 위한 성도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통문이 나온 이후 이에 찬동하는 취지의 글들이 뒤를 이었다. 먼저 이해 말에 대구 수성동에 거주하는 이기윤(12월 24일)이 덕천서원으로 서신을 보내어 정구를 조식 문인 중 오건에 이어 두 번째로 배열한 것이 부당하므로 마땅히 첫 번째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데 이어, 대구시 완전동의 완석정 이씨 문중(12월 25일)이 덕천서원으로 보낸 통문 역시 그러한 취지의 주장을 하며 용강서당 및 그에 찬동한 통문들을 성토하였다.<sup>47)</sup> 김황이 덕천서원으로 보낸 위의 서신에는 원래 회연서당 측에서 간소에 대해 정구를 문인 중 최상위에 배열할 것을 요구했었으나, 간소에서는 그 스승에 해당하는 오건보다 앞에 배열한다는 것은 오히려 정구의 체면에 관계된다 하여 오건 다음으로 제2위에 배열했다는 내용이 보이는데<sup>48)</sup>, 이러한 글들에서는 그것조차도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1962년에 접어들어서도 「회연서당통문」에 호응하는 통문들이 계속 이어졌다. 그러한 것들로는 정월 12일 선산군 해평면 주천 김씨 문중의 「주천김생간통덕천문(舟川金生簡通德川文)」, 정월 13일 성주군 수륜면 법산 최씨 문중의 「오암서당통덕천문(鰲巖書堂通德川文)」, 2월 3일 칠곡군 왜관읍 매원의 「감호당통덕천문(鑑湖堂通德川文)」, 3월 15일 칠곡군 가산

46) 『重齋集』前集 (45) 雜著 「應辨後記」; (47) 雜著 「謹書天君傳後」.

47) 「李基允書」, “以齒則寒岡當居幾賢之後,以德則當居諸賢之首,以齒以德,俱有不當於第二 [...] 以寒岡爲首題然後庶可鎮衆謗.”; 「浣石亭通文」, “德川之錄,不刊則已,刊之則舍先師而孰敢有先之者?”

48) 「金梔書以呈德川書院」, “聞前年檜淵人謂必以寒岡書在最上,而彼輩懇乞以德溪爲首者爲寒岡體面云. 若然則此書乃全爲寒岡作者耶? 豈亦道德之序以爲當然耶?”

면 학하 장씨 문중의 「경심재통덕천서원문(景深齋通德川書院文)」, 3월 20일 사천군 곤명면 금성리의 「연강정답덕천서원문(練江亭答德川書院文)」 등이 있다.

그러나 산청군 산청면 지리 덕촌의 오건을 주벽(主壁)으로 하는 서계서원(西溪書院)과 용강서당 측은 이해 2월 15일에 각각 인쇄된 통문을 발하여 「회연서당통문」을 논박하였다. 서계서원의 경우는 회연서당 측이 정구의 도통을 내세워 『산해사우연원록』과 『덕천사우연원록』에서 모두 문인 중 수위에 배열된 오건을 밀어내고 정구로써 대체할 것을 시도한 데 대한 반발이었다. 서계서원 측은 오건이 정구에 대해 스승에 해당할 뿐 아니라, 조식 스스로도 다른 문인과는 달리 종유인의 예로써 대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sup>49)</sup> 「용강서당답회연서당문(龍江書堂答檜淵書堂文)」에서는 자기 측에 호응하는 유론으로서 우도지역의 갈천·도강·대각·수정당·이의정과 좌도지역의 소수·삼계·호계·임천을 들었고<sup>50)</sup>, 지난해 여름과 가을 두 차례에 걸쳐 회연서당으로부터 패자(牌子)를 통해 모욕당했으나 보복하지 않았던 사실을 언급하고, 말미에 김황의 「응변후기」를 첨부하고서, 이후로는 회연서당 측이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할지라도 자중하여 더 이상 응답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회연서당 측은 5월 12일자로 「회연서당답용강서당재발문(檜淵書堂答龍江書堂再發文)」이라는 제목의 석판인쇄물을 발행하였다. 이

49) “德川淵源錄編輯時，鄭氏請以寒岡居首弟，鄙等聞之，付一笑而已。既而德川僉議以爲不可，以德溪先生決定首位，卽印而頒布，諸家皆無異辭 [...] 特舉道統題目，而發通於各門，誇張聲勢。甚可駭者，其文辭不順，正面則攻龍江，其內心則暗然有侮視諸賢，尤逼我德溪先師 [...] 德溪先師之居諸賢之首，當時已有諸賢之推許，尤有朴无憫公之煌々筆錄，是皆相讓以齒者乎？寒岡先生於德溪先生，有不可犯不可脫之倫，來通區區辨證，敢書(覆庇諸子)之文句，慢然示眼下無人之色，其意尤可驗矣 [...] 德溪於冥翁，可謂及門，而亦可謂從遊矣。”

50) “至於葛川道江大覺守正堂二宜亭，併皆尊衛先賢之重所，而所持者各有其故，初何嘗有所煽動而和附者乎？乃若紹修三溪虎溪溪臨川，又是儒論之所由出，而據義申喻，足以鎮定羣趨，是又安得一切以各家而蔑視之？” 그중 좌도의 삼계서원은 경북 봉화군 봉화읍 삼계리의 權機을 獨享하는 사액서원이다. 이 통문에는 우도의 상기 堂·亭 외에도 浣溪·麗澤·后山·尼東의 堂任과 우도 각지 및 전라도 지역 유림 등 총 808명이 연명되어 있다. 그러나 이해 4월 6일에 함양군 안의면 城北里의 박씨 문중에서는 답통을 보내 자기 문중 朴相琮·朴琳箕의 이름이 儵列되었다면서 빼줄 것을 요구했고, 5월 5일에 진주 옥중면 중화리의 鄭載業, 7월 10일에 진주의 李鑑玉, 9월 11일에 진주의 姜志泳, 10월 10일에는 서계서원 외임 林瑋圭 또한 자신이 盜名당했다는 취지의 해명서를 덕천서원으로 보냈다. 회연서당의 답통과 「德川答龍江道江及各處通文」에는 이들 외에도 도명된 여러 사제가 열거되어 있는데, 그중 후자에 의하면 김재수의 장례식 弔客錄에 실린 수백 명의 이름도 모두 膾炙되었다고 한다.

글 속에서는 인조 5년(1627)에 회연서원의 위판을 봉안하던 때로부터 소급하여 정구·김우옹의 위차 문제를 다루어온 이른바 청회시비(淸檜是非)의 전말을 서술하고, “도통정맥은 천하의 공물(公物)이 될 수 없다”라는 논지로써 도강서당 측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이번에도 창녕군 이방면 국동 노씨 문중의 「동산서당통덕천서원문(東山書堂通德川書院文)」(6월 15일), 「언양향교통덕천서원문(彦陽鄉校通德川書院文)」(6월)<sup>51)</sup>, 창녕군 성산면 곽천의 「부용서당통덕천서원문(芙蓉書堂通德川書院文)」(7월 5일), 칠곡 지천의 「오양재통덕천서원문(梧陽齋通德川書院文)」(8월), 경산군 고산면 성동의 「고산서당통덕천용강문(孤山書堂通德川龍江文)」(8월), 칠곡군 자곡면 매남동의 「매양서당통덕천서원문(梅陽書堂通德川書院文)」(8월 23일), 함양군 지곡면 거평의 「함양강씨통덕천서원문(咸陽姜氏通德川書院文)」(9월 1일) 등 회연서당의 주장에 대한 호응이 있었다.

그런데 이해 7월 15일에는 덕산 조씨 문중 105인의 이름으로 김황의 「응변」을 조목별로 논변한 『응변변(應辨辨)』이라는 책자를 발행하여 널리 배포하였다. 거기에 실린 「답용강도강급각처통문(答龍江道江及各處通文)」 및 그 발문에 해당하는 「응변변후제(應辨辨後題)」는 필사본 『담헌집』 권10에 실려 있어 하우선이 쓴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sup>52)</sup> 『응변변』은 총 30장으로, 『덕천사우원원록』과 관련한 논변 중에서는 가장 분량이 많은 것이다.

10월 29일에 서계서원이 다시 인쇄된 통문을 발행하였다. 그것은 상기 언양향교<sup>53)</sup>·부용서당<sup>54)</sup>·오양재<sup>55)</sup> 통문 등에서 다시금 『덕천사

51) 동산서당 통문의 우체국 소인에는 “62.7.24”로 되어 있으며, 언양향교 통문의 경우 본문에는 ‘壬寅六月日’로 되어 있지만 봉투의 소인에 “62.8.6”이라고 보인다. 다른 통문 등의 경우에도 이처럼 본문에 적힌 날짜와 소인에 적힌 날짜는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는데, 많은 경우 본문이 음력으로 적힌 데서 말미암은 것일 터이다.

52) 덕천서원에 보관되어 있는 하우선의 친필로 보이는 『德山通文』에는 각각 「德山答龍江道江及各處通文」 「應辨辨後識」라고 보이며, 『덕천사우원원록전말』(坤)에도 그렇게 되어 있다. 연환자로 간행된 『응변변』에는 「응변변후지」 대신 「應辨辨首識」가 실렸는데, 그 말미에 보이는 문구는 필사본 「후지」의 “全省儒林, 由渠煽動, 東聚西集, 糜費至屢巨萬, 以至戈戟相炒, 產出無限不好光景矣. 諺不云乎? 鯢魚之微, 足以濁汚池, 其斯之謂歟?”를 거의 그대로 옮긴 것이다. 이러한 점 등으로 미루어, 『응변변』의 본문 역시 하우선이 집필했을 가능성이 있다.

53) “不利淵源錄則已, 若刊之則以我寒岡先生必於首題.”

54) “吾嶺已定之論, 以寒岡爲陶山嫡傳, 其來也久矣. 陶山之門, 雖有趙月川金鶴峰柳西厓諸先生并立高弟之列, 其嫡統之歸於寒岡, 如洙泗之門, 雖有顏冉之德行, 其傳道之責, 必歸於曾子, 又如洛閩之門, 有諸子之賢, 而以楊龜山黃勉齋爲正宗也. 寒岡既在陶門如此, 則於德川獨不爲嫡統乎?”

우연원록』 중 문인의 제2위에 배열된 정구를 오건을 밀어내고 첫머리로 올릴 것을 요구한 데 대한 반응으로서, 말미에 정구가 오건과의 사생(師生) 관계를 스스로 언급하고 있는 오건 제문을 첨부하여 그 부당성을 논한 것이다. 서계서원 측은 덕천서원과 회연서당 측에 이 문제를 따졌지만, 양측의 응답은 “결국 중론의 다수에 따라 개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한다.<sup>56)</sup>

그러므로 서계서원 대표 임봉규와 오규환은 이를 ‘위차장탈전’이라 칭하면서, 전년에 간행된 『덕천사우연원록』을 가리켜 200년 전 선현들이 논정한 『산해사우연원록』의 기존 서차를 함부로 바꿈으로 말미암아 유림 분규의 근본 원인을 제공한 부정인쇄물로 규정하고서, 그 주필 하우선과 경리 조철섭을 상대로 정구의 후손과 야합하여 오건과 정구의 위차를 바꾸는 비밀 간장(間張)을 만들고자 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12월 16일자로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여, 변경된 부분들을 원록(元錄)대로 정정할 것과 분규의 근본적 해결 및 경리 상황에 대한 공식적 보고를 요구하였다.<sup>57)</sup> 이에 대해 하우선·조철섭은 제기된 사유들에 대한 설명은 이미 행해졌으며 이는 ‘허무한 억설’이라는 내용의 회답을 12월 24일자로 보냈지만, 임봉규·오규환은 그것을 수용하지 않고 1963년 1월 13일자로 다시금 전일의 내용증명서에 대한 정식 회답을 요구하는 ‘재고(再告)’라는 제목의 독촉장을 발송하였다.

이와 같은 서계서원과 덕천서원 사이의 알력관계는 1963년 3월 25일(음력 3월 1일) 춘향(春享) 후 덕천서원 강당에서 열린 유림총회를 통해 종결을 보게 되었다. 이날 서계서원 대표 오규환 및 하우선 등 81명의 유림·제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오규환이 제기한 간장(間張) 문제에 대해 산천재 외임 정영석이 이미 인출된 『덕천사우연원록』의 서차를 한강수제설에 따라 변경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대답하고, 또한 참석자들이 만장일치로 이를 확인하여 서계서원 측에서도 그러한 결정을 수용하였던 것이다.<sup>58)</sup>

55) “德川編撰冥翁門錄也，下寒岡於德溪翁，而載之第二位，抑何義也？寒岡雖尊德溪以先生，此非有事于德溪，有事于南冥，則推寒岡於第一，乃所以尊南冥也。”

56) “不意今者，以寒岡先生首題做題目通文有到德川書院云，生等卽以事體不當屢詰于德院，又專諭于檣院，則兩院執事者，不顧名分大義，又不數前後刊行，答曰，終當依衆論從多改板。”

57) “參百帙의 單金(件當三〇〇圓式)과 其代金(帙當二五〇圓式)의 總額現在經理狀況을 收入支出證憑添付整理하여 本院 및 全淵源家代表總會席에나 書面으로나 報告할 것.”

58) 吳珪煥 작성 필사본 「會議錄」. 이날 덕천서원의 내임은 曹哲燮에서 曹煥燦으로 교체되

한편 용강서당 측에서는 「회연서당답용강서당재발문(檜淵書堂答龍江書堂再發文)」에 대해 1962년 12월에 그 반박문을 작성해두었으나, 덕산 조씨 문중으로부터 『응변변』이 나오자 그것에 대한 답변과 아울러 1963년 정월에 김황의 형 김건을 필두로 한 김씨 문중 16인의 명의로 『의변(擬辨)』(내제는 「회연통문의변(檜淵通文擬辨)」)이라는 제목의 15장에 달하는 연환자 인쇄물을 간행하였다. 또한 4월 26일에는 성주의 청천서당 측이 도내의 각 유소 문중에 대해 두 번째로 인쇄된 통문을 내어, 동강·한강의 우열에 대한 분쟁을 중지하고 나란히 존숭함으로써 대립관계를 청산하고 양가의 화합을 도모할 것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회연서당 측은 1963년 11월 15일자로 『변의변(辨擬辨)』(내제는 「회연변압합김씨의변(檜淵辨鴨峴金氏擬辨)」)이라는 제목의 10장으로 된 석판인쇄물을 간행하여 김씨 문중의 주장을 조목별로 논박하였다.

이에 앞서 회연서당의 당임인 정재규 등은 1963년 정월 21일자로 전년 연말에 『응변변』 7책과 함께 보내온 연합(聯函)에 대한 답신 형태로 덕천서원의 내임 조철섭에게 연합을 보내어, 덕천서원 측이 서계서원·용강서당의 주장에 견제되어 정구 수제의 주장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힐난하였다. 이 통문에 의하면 전년 가을에 덕천서원 측은 그 문제에 대해 스스로 결단하지 못하고 서계서원의 유생을 회연서당으로 보내어 이해 당사자끼리 직접 협의하도록 조치했는데, 만약 이 문제에 대해 덕천서원이 회연서당과 입장을 달리한다면 앞으로는 더 이상 덕천서원 측과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sup>59)</sup>

2년 후인 1965년 2월 19일에 회연서당 측은 다시 한 번 덕천서원으로 연합을 보내어, 남명 문인록 중에서 수제를 개편하는 일은 이전에 회연서당 측의 정구 본손<sup>60)</sup>이 덕천서원 향례의 축관을 맡았을 때 양자 간에

었다. 이 글에서 사용된 서계서원 관계 문서들은 필자가 故 오규환 옹으로부터 입수하여 복사해둔 것이다. 오 옹은 필자의 주선에 의해 「德溪 吳健先生의 人間像」, 『南冥學研究論叢』 제2집(1992), 317-348쪽을 발표한 바 있다.

59) “況德川與檜淵四百年同聲之地，而今始不同其義，則來頭之分論可知。答在檜淵乎？答在德川乎？願自反而諒處焉。” 우체국 소인은 '63.2.14'로 되어 있으며, 서명자는 鄭孝永·崔性龍·鄭在揆이다. 말미에 “鄙等見辱於沙月金氏，方在訟庭，觀於日前大邱日報新聞可知也.”라고 하여, 회연서당 측이 沙月の 김씨 측과 법정투쟁을 벌이게 되었다는 내용이 보이는데, 사월이라는 지명은 불명하지만 산청군 단성면에 沙月里가 있다.

60) ‘德川師友淵源錄纂輯所任名案’에 都廳 6인 중 한 명으로 보이는 星州 枝村의 鄭源鎬를 가리킨 듯하다.

이미 합의를 본 바임에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이후 몇 차례 그 실행을 촉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회답이 없다고 하면서, 양자 간의 우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빨리 결정하여 통보해야 할 것임을 또한 차례 촉구하고 있다.<sup>61)</sup>

이 편지에서 회연서당 측은 향·도·국론이 자기네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하면서, 그 증거로서 삼계서원이 1964년 정월 15일자로 용강서당에 보낸 「삼계수통문자부분(三溪收通文字副本)」을 첨부하였다. 그 내용은 삼계서원이 용강서당으로 보냈던 답통은 원래 분쟁을 조정하려는 취지였는데 그 이후 분쟁은 한층 더 심화되었고, 이해 초에 회연서당 측으로부터 『변의변(辨擬辨)』을 받은 데다 일부러 사람을 보내와 전일의 답통이 타당치 못한 것이었다고 책망하므로, 선대의 계분(契分)이나 존위(尊衛)의 도리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요구를 무시할 수 없으니, 우선 자기 문중 사람의 이름이 용강서당 측 통문에 들어간 것부터 환수코자 한다는 것이었다.

거의 같은 시기인 정월 13일에는 임천서원 측이 덕천서원으로 연합을 보내어 왕년의 임천서원 답통을 즉시 환수코자 한다고 알려왔고, 2월 10일에는 의성군 가음면 장동에 있는 남휘현(覽輝軒)의 신(申)씨 문중이 덕천서원으로 연합을 보내어 회연서원의 한강·동강 위차 문제에 대해서는 회연서당 측 주장이 옳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처럼 왕년에 용강서당 측을 지지했던 일부 유소들까지 그러한 입장을 취소하면서 좌도의 유론은 대부분 회연서당 쪽으로 기울었지만, 결국 정구 수제의 주장이 실현되지는 못하였다.

## V. 맺음말

『덕천사우연원록』은 구한말 조식 후손인 조원순이 편집한 『산해연원록』의 취지와 형식을 계승한 것으로서, 1950년대 말에 하우선이 덕천서원

61) “第南冥先生門賢錄首題改編事，年前鄺所本孫之當貴院祝官也，曾所開坐而決論者也。繼而有數三次仰質其遲緩，而何至至今無一字回示也？大義不得不伸，況其發論而旋止，則其所未安將何處止迫也？年來鄉道國論，如是其歸重，而貴院終若不知者然。則兩所莫重之誼，鄺等不敢曰保有其地也。須速決案而回示之仰企。” 서명자는 鄭在揆·李堉錫·鄭璵容이다.

외임으로 재임하던 시기에 그가 주필이 되어 편찬한 남명학파의 새로운 인물지이다. 인조 연간에 박인에 의해 편찬된 『산해사우연원록』에는 누락된 인물이 있는 데다 전체 수록 인물 74인 중 마지막 권9에 약 절반에 해당하는 36인이 배열된 점으로 미루어 알 수 있듯이, 개인의 능력으로서는 관계 자료의 수집에도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미비점들을 수정 보완코자 한 것이다. 서명은 한동안 『산해사우연원록』의 옛 이름을 답습하였으나, 출판에 즈음하여 『덕천사우연원록』으로 바뀌었다.

이 새로운 사우록의 가장 큰 특징은 종래의 것이 종유인과 문인으로만 구성된 것에 비해, 그 첫머리에 조식의 사성현화병에 근거한 '도통원류'를 설정하고, 일반적인 사우록에서는 볼 수 없는 사숙인을 포함시킨 점이다. '사숙'의 수록 범위는 숙종대의 인물까지로 한정했는데, 그것은 현존하는 『덕천원생록』이 광해군 시기로부터 현종 연간까지의 기록만 보존되어 있는 점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종유인과 문인의 경우에도 박인이 편찬했던 옛것을 계승한다는 입장을 표방하고는 있으나, 대폭적인 추가와 배열 순서의 개편이 행해졌다. 이런 점이 그 수록 범위 및 문인의 배열 순서를 둘러싸고서 조식의 주요 문인인 정인홍·김우옹·정구·오건의 후예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야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정인홍의 경우는 구한말에 이미 신원·복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록할 수 있는 명분은 주어진 셈이지만, 정구 후예의 항의에 의해 결국 배제되고 말았다. 김우옹의 남명학과 내 위상과 관련하여서는 숙종 연간에 필사본 『산해사우연원록』을 『남명선생별집』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간행했을 당시부터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서, 김우옹·정구의 후예 사이에 벌어진 청·회시비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그러나 이 문제가 『덕천사우연원록』의 출판에 즈음하여 재연된 것은 덕산의 조식 후예들이 허목이 지은 「답학자」나 「덕산비」에서의 조식 폄하가 김우옹·정인홍이 집필한 조식 행장에 근거한 것이라고 인식하여, 조원순의 아들 조용상이 공개적으로 김우옹을 비판한 문자를 남긴 데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회연서당 측은 덕천서원에 가담하여, 인조반정 이후 남명학파의 남인화 경향과 더불어 대두한 정구 적전론을 배경으로 주로 강좌 지방의 유론을 동원해 도통설로써 김우옹 후예 측의 주장을 제압할 뿐 아니라, 오건과 정구의 위치를 바꾸는 정구 수제의 주장까지 관철하고자 시도했으나, 후자의 경우는 결국 성공하지 못하였다.

## 참 고 문 헌

- 『古文書集成 25 - 德川書院篇』,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 『德川師友淵源錄』 2책, 鉛活字本.
- 『德川師友淵源錄』 2책, 덕천서원 소장 필사본.
- 『德川師友淵源錄顚末』 2책, 덕천서원 소장 필사본.
- 德川書院 소장 고문서
- 『德川書院儒稷案』 4책, 필사본.
- 『德川書院誌』 1책, 필사본.
- 『德川書院靑衿錄』 1책, 덕천서원, 1939.
- 『德川院生錄』 7책, 필사본.
- 『陶山及門諸賢錄』, 5권 2책.
- 『山天齋〃任案』 1책, 필사본.
- 『山海師友淵源錄』 3책, 덕천서원 소장 필사본.
- 『商山金氏世譜』.
- 『商山金氏先蹟誌』, 商山金氏大宗會.
- 西溪書院 소장 고문서
- 『小川書堂儒契案』 1책, 필사본.
- 『小川儒契案』 1책, 필사본.
- 『時到記』 1책, 덕천서원 소장 필사본.
- 『應辨辨』 1책.
- 『晉陽續誌』.
- 『晉州通志』.
- 『昌寧曹氏文貞忠順衛公派譜』.
- 郭鍾錫, 『俛宇集』. 아세아문화사 영인본, 1984.
- 金克永, 『信古堂遺輯』.
- 金字頤, 『東岡集』 중간본.
- 金麟燮, 『端溪集』 목판본.
- , 『端溪集』 연활자본.
- 金在洙, 『重軒隨州』 4책, 山淸郡 新等面 坪地里 소재 필사본.
- 金梈, 『重齋集』 11책, 保景文化社, 1988.
- 朴綰, 『南冥先生別集』 9권 4책.
- , 『无悶堂集』.
- 李滉, 『宋季元明理學通錄』.
- 曹圭詰, 『夙夜齋叢稿』. 東仙會, 1982.
- 曹植, 『南冥集』 중간본.
- 曹垣淳, 『山海淵源錄』 1책, 필사본.
- 曹庸相, 『弦齋集』.
- 朱熹, 『伊洛淵源錄』.
- 河禹善, 『澹軒集』 4책, 필사본.
- 河應魯, 『尼谷集』.



河澈, 『雪窓實記』.

河弘度, 『謙齋集』.

許穆, 『記言』.

『내 고장의 전통』, 진양군, 1983.

『진주의 문화유산』, 진주문화원, 1998.

吳二煥, 『남명학과연구 上』. 남명학연구원출판부, 2000.

吳珪煥, 「德溪 吳健先生の 人間像」. 『南冥學研究論叢』 제2집, 1992, 317-348쪽.

吳二煥, 「『南冥集』 重刊本の 성립」. 『철학논총』, 제32집 제2권, 2004, 3-50쪽.

——, 「일제시기의 덕천서원」. 『동양철학』 제32집, 2009, 171-205쪽.

## 국 문 요 약

『덕천사우연원록』은 1950년대 말에 하우선이 덕천서원 외임으로 재임 하던 시기에 그가 주필이 되어 편찬한 남명학과의 새로운 인물지이다. 인조 연간에 박인에 의해 편찬된 『산해사우연원록』에는 누락된 인물이 있는 데다 개인의 능력으로서는 관계 자료의 수집에도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미비점들을 보완코자 한 것이다.

이 사우록의 가장 큰 특징은 종래의 것이 종유인과 문인으로만 구성된 것에 비해, 그 첫머리에 조식의 '도통원류'를 설정하고, 일반적인 사우록에서는 볼 수 없는 사숙인을 포함시킨 점이다. 종유인과 문인의 경우에도 대폭적인 추가와 배열 순서의 개편이 행해졌다. 이런 점이 그 수록 범위 및 문인의 배열 순서를 둘러싸고서 조식의 주요 문인인 정인홍·김우옹·정구·오건의 후예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야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김우옹의 남명학과 내 위상과 관련한 주장은 김우옹·정구의 후예 사이에서 벌어진 청·회 시비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재연된 것은 덕산의 조식 후예들이 허목이 지은 「덕산비」에서의 조식 폄하가 조식 행장에 근거한 것이라고 인식하여, 그 글을 지은 김우옹을 비판한 데서 비롯되었다. 그 과정에서 회연서당 측은 덕천서원에 가담하여, 강좌 지방의 유론을 동원해 정구 도통설로써 김우옹 후예 측의 주장을 제압할 뿐 아니라, 정구를 문인의 첫머리에 배열하고자 시도했으나 결국 성공하지는 못하였다.

**투고일** 2010. 11. 12.

**수정일** 2011. 1. 28.

**게재 확정일** 2011. 2. 10.

**주제어(keyword)** 하우선(Woo Seon Ha), 김황(Hwang Kim), 용강서당(Yonggang Seodang), 회연서당(Hoeyeon Seodang), 서계서원(Seogy Seowon)